

# “복지시설도 경영마인드 갖춰야”

## 불교계 복지시설 정부보조금 의존 ‘과반수’ 넘어 복지부장관상... 화평 스님·김종순 열린가람 대리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전문가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성장을 위해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과 종교법인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AW. 컨벤션센터에서 마련한 특

별 세미나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12월 2일 열린 세미나는 2010년 한국 불교자비나눔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경환 연구위원은 전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1097개 중 958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2009년도 수입원의 구성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정부보

조금이었다. 사업수입은 14.9%에 그쳤고, 요양급여수입 13.0%, 후원금 5.6%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40.2%, 영유아시설은 23.9%, 장애인복지시설 9.1%, 지역 사회복지시설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위원은 “시설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중심이며 서울, 경기, 경북에 집중돼 있다. 또한 민간위탁 형태가 많아 정부지원 비율이 높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경환 연구위원의 발제 후에는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의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무 인식과 실태’,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의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 후에는 김형용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상길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고강호 영남이공대학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특별 세미나 후에는 자비나눔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펼쳐졌다. 시상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에 정명순 효능원복지재단 자원봉사자, 김용수 조계종 자원봉사단 봉사자가 각각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과 김종순 열린가람 대리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각 분야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박기범 기자 smile2@hanmail.net

# 경불련, 서대문에 사무실 개소

## “소외된 이웃 적극 돕겠다”

지난 6월 경제인 불자들이 모여 출범한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구자선)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11월 29일 서울 충정로 CI빌딩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날 불자 경제인 양성 및 지원, 장학회 조직, 승가 의료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실천하고, 계층간 벽을 허물어 상생·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당부한다”고 축원했다.



경불련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렸다. 사진=박재원 기자

구자선 회장은 “정당하고 깨끗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을 경제인 불자들의 단합과

발전, 청년불자들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1644-6705 이나은 기자

# 추위 녹이는 나눔의 손길 줄이어

## 목련회, 국민은행 등 불교 발전 기금 전달

부처님의 뜻을 확산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이 불교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논산훈련소의 법당 신축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은 12월 1일 총무원 접견실을

방문해 자승 스님에게 기금을 직접 전달했다.

같은 날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목련회에서도 논산훈련소 법당 신축 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 돈은 비구니 스님들이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회비로 조성된 성금이다. 신륵사에서는 신륵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12월 2일 기탁했고, 같은 날 동국미술인회는 자비나눔 기금으로 7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1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불사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군포교에 꼭 필요한 신축불사에 뜻을 내 쥐서 고맙다.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박기범·노덕환 기자

# 애니메이션 ‘일심’ 대원상 선정

## 24일 다보빌딩서 시상... 대상작 없어 아쉬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원상 심사 결과 이현석 영국리퍼버러대학 연구원의 애니메이션 ‘일심’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진흥원은 올해 심사 결과 대상 선정작은 없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일심’ 이외에도 제8회 대원상 부문II(콘텐츠대상) 특별상과 장려상 수상자를 11월 30일 발표했다. 특별상에 박재현 대구불교방송 편성제작팀장의 드라마 ‘대열반’과 동국대 영상대학원에 재학중

인 홍진혁씨의 영화 ‘도시유화’를 선정했다. 장려상은 김부근 동국대 교수의 게임개발 스토리텔링 ‘황금의 칼’과 디오앤스튜디오&포드립의 사찰 안내 애플리케이션이 각각 결정됐다.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 창출을 위한 이번 대회에는 총 32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우수상은 700만 원, 특별상은 각 500만 원, 장려상은 각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2월 24일 오후 3시 다보빌딩 강당

에서 진행된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현석씨의 작품 ‘일심’은 한국 전통사찰의 아름다움과 심오한 한국 선불교 사상을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이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잘 살렸고 미술적 완성도가 높아 홍보와 포교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현석 연구원은 2003년 서울디자인 포럼전에서 디자인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갖기도 했다. 현재 영국 어퍼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박기범 기자

# “복지재단 문제 해결하겠다”

## 대중결사, 토론회 개최 의사 밝혀

정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지역 사찰 파장을 일으킨데 대해 신중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사무총장 금강 스님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 거론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거론함으로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고질적인 문제가 알려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오 스님은 “지역 복지관에서 인적, 재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은 지역 사찰이 하면서, 모든 공문이 복지재단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

제종합사회복지관장의 정책특보 임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생긴 파장을 일으킨데 대해 신중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사무총장 금강 스님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 거론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거론함으로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고질적인 문제가 알려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오 스님은 “지역 복지관에서 인적, 재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담은 지역 사찰이 하면서, 모든 공문이 복지재단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

장이 담당하고 있는 이중구조는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소금융 거제지점 오정림 대표는 12월 2일 불교포커스에 “실제 수탁준비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을 전달한다”며 메일을 발송했다. 오 대표는 메일에서 진오 스님을 △거제복지관 사태에서 중립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의형성장을 주도해 장본인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대중결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대중공사를 통해 문제의 진위를 찾고,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시작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는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 포교·신도단체 중국불교 체험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포교·신도단체 대표 및 주요임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국불교 체험연수를 실시했다.

포교원은 11월 24~28일 ‘2010년도 포교·신도단체 임원 연수’를 개최하고 중국 무석영산대불, 구화산, 서하사, 청량사 등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포교·신도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불교 체험을 통한 신심고양과 포교사업 발전의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등 20개 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제7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 [총본산창건기념 사암 및 종도 모집]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제7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덕, 대선 및 대덕, 종덕 및 종사, 대중사 품수를 응할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명 : 제7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및 품수 수여식
  - 일 시 : 2554(2010)년 12월 19일(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향사
    - \* 금년도 법계고시는 총본산 각향사에서 시행합니다.
    - \* 사암 및 종도 모집하며 년간 분담금 없음
    - \* 임원 간부 소임을 맡을 분 환영합니다.
    - \* 종사급 이상 품계를 받는 분에게는 종사급, 인증패, 불자 등을 수여함
    - \* 본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승려도 환영 합니다.
- 임제종 칠탑사 백성장으로 법맥을 이어 받을 전법제자 건강 신청 받습니다. (25조 흥가사 수여함)

- 대선 및 종덕 대상자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 (2) 승납 5년이상(대선) (3) 승납 10년이상(종덕)
- 대덕 및 종덕 대상자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종덕 및 대선 수지자)
  - (2) 승납 20년이상(대덕) (3) 승납 25년이상(종덕)
- 종사 대상자
  - (1) 법납 30년 이상. (2) 종덕 법계 5년이상
- 대중사대상자
  - (1) 법납 35년이상 (2) 종사 법계 5년이상
- 대승정 대상자
  - (1) 법납 40년이상 (2) 대중사 법계 5년이상

- 신청 및 구비서류
  - (1) 법계신청서(총무원에서 발급하는 양식)
  - (2) 건강신청서(건강 하실 승려에 한함)
  - (3) 증명사진 1매
- 신청 마감(서류전형)  
불기 2554년 12월 15일(수요일) 오후 5시
- 문 의  
054)325-0400, 010-2772-0779

불기 2554년 12월 3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최고위원회 명예위원장 각 압 위 원 장 원 당 총무원장 능 인